

# 갤노트7, 오늘부터 환불·타제품 교환

### 발화 사고로 단종...국내 50만대 방문일 개별 통지

### 교환 차액 현금 지급 등 검토...유통점들, 피해 우려

삼성전자가 잇단 발화사고가 발생한 갤럭시노트7(이하 갤럭시노트7) 판매를 중단에 이어 생산까지 전격 중단하기로 했다. 갤럭시노트7이 데뷔한지 2개월 만에 단종된 것이다.

국내 이동통신 3사도 갤럭시노트7 환불과 타제품 교환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환불과 교환대상 물량이 50만대에 달하는 데다, 각종 정산과정 등 관련업무가 복잡해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1일 오후 삼성전자와 회의를 거쳐 전역환불과 타제품 교환을 골자로 하는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환불과 타제품 교환은 13일부터 12월31일까지 진행된다.

갤노트7 구매자 중 희망고객은 구매처에 기기를 반납하면 위약금 없이 실무자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교환을 원하는 고객은 구매처에서 갤럭시노트7을 제조사 상관없이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 있다.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다음 달 통신비를 할인받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 팔린 갤럭시노트7은 교환 물량과 신규 판매를 합해 약 45만대로 파악된다. 아직 교환되지 못한 기존 물량까지 합하면 50만대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리콜 당시에는 발표 후 교환과 환불까지 2주간의 시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하루에 불과하다. 당장 교환에 따른 차액 보상 방법부터 확정해야 한다.

이동통신 3사는 우선 고객에게 개별 공지를 통해 환불 및 교환 절차와 권장 방문일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중소유통점도 대규모 환불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지급한 사은품 비용을 그대로 따안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판매한 갤럭시노트7 판매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9월 시장이 크게 위축됐는데 환불과 교환조치로 업

무부담이 커지면서 중소기업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따른 LG전자 신제품 'V20'과 미국의 애플 '아이폰7', 구글 '픽셀XL'의 반사이익도 예상되고 있다. 교환·환불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다른 대체 스마트폰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갤노트7 사용자들은 갤럭시S7이나 갤럭시S7엣지로 교환하거나 환불을 선택한 뒤 다른 스마트폰으로 바꿀 가능성이 큰 상태다.

갤럭시S7 시리즈는 출시된 지 6개월이 지났고, 3~4개월 후 갤럭시S8 출시가 예정된 상황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원하는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대화면 스마트폰은 '아이폰7 플러스'다. 이통사들은 오는 14일부터 아이폰7 플러스를 예약판매하고, 21일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시가상 갤럭시7에서 갈아타기에 가장 매력적인 신제품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구글 안드로이드에서 애플 iOS로 바꾸기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은 아이폰 대신 다른 안드로이드폰을 고려할 수 있다.

갤노트7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최신 안드로이드 대화면 폰은 LG전자 V20와 구글 픽셀폰 정도다. 5.7인치로 갤럭시7과 화면크기가 같은 V20는 갤럭시7과 기본 사양이 거의 비슷하고, 탁월한 배터리, 특별히 강화된 오디오·카메라 기능을 갖췄다. 5.5인치의 픽셀XL은 안드로이드 7.1과 4GB 램, 샌드드래곤 821 프로세서를 탑재해 기본사양은 갤럭시7을 능가한다. 다만, 국내 출시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당장 교체는 어렵다.

IT 전문 매체 안드로이드 어소리티는 최근 일반 네티즌 8425명을 대상으로 갤럭시7을 대신할만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9%가 V20, 25%가 픽셀XL을 각각 선택했다고 보도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갤노트7 환불과 아이폰7 시리즈 출시시기가 공교롭게 맞물렸다"며 "기존 갤럭시7 이용자들의 이탈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기용기자 pboxer@연합뉴스

### ■ 갤럭시7 사태 주요 일지

8월 2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이하 기기) 미국 뉴욕서 최초 공개.
8월 6일	국내 예약판매 개시.
8월 19일	한국·미국 등에서 출시.
8월 24일	인터넷 커뮤니티(블루)에 국내 발화 추정 사례 공개. 삼성전자 원인 조사 착수. 이후 국내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추가로 발화 사례 알려짐.
8월 31일	삼성전자, 국내 이동통신사에 기기 공급 중단.
9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 삼성전자에 폭발 조사결과 보고 요청.
9월 2일	삼성전자, 배터리 결함 공식 확인. 전량 교환 발표.
9월 8일	미국 연방항공청(FAA), 기기 기내 사용 중단 권고.
9월 9일	서비스제품안전위원회(HPSC), 기기 사용 중단 권고.
9월 15일	미국 CPSC, 삼성전자와 협력해 기기 공식 리콜 발표. 캐나다, 멕시코 등의 규제당국도 같은 조치 취함.
9월 19일	결함 있던 옛 기기와 다른 배터리를 쓴 새 갤럭시노트7(이하 새 기기) 한국 공급 시작, 교환 개시.
9월 21일	새 기기 미국 공급 시작, 교환 개시.
9월 26일	중국 광저우에서 새 기기 발화 사건 발생.
10월 1일	새 기기 국내 일반판매 개시
	서울 송파구에 사는 소비자의 새 기기에서 화재 발생
10월 2~5일	삼성전자, 서울 송파구 기기 화재와 관련해 한국SGS 기술품시험소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 분석을 의뢰해 "외부 충격 혹은 불량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고 배터리 자체 결함으로 볼 수 있는 소문 흔적은 없었다"는 확인을 받음
10월 4일	미국 캔자스주 니컬러빌의 한 주택 침실에서 새 기기 발화, 사건 발생 2달 후 언론보도로 알려짐.
10월 6일	미국 캔자스주 루이빌 공항에서 승객들이 탑승중이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여객기 내에서 한 승객의 새 기기 발화, 승객 전원 대피.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조사에 착수.
10월 7~9일	대만 타이베이, 미국 미네소타주 파밍턴,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텍사스주 휴스턴 등에서 새 기기 발화.
10월 9일	버리존, AT&T, T-모바일 등 미국 이동통신사들, 새 기기 판매 및 교환 중단.
10월 10일	삼성전자, 새 기기 생산 중단.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요구에 "최근 갤럭시노트7 소문 발생으로 정밀한 조사와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공급량 조정이 있는 중"이라고 답변.
10월 11일	삼성전자, 웹사이트 뉴스룸 통해 "갤럭시노트7 교환품에 대해 판매와 교환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기기 전원 고고 사용 중단하라고 촉구. 국가기술표준원, 갤럭시노트7 사용 및 교환·신규 판매 중지 권고.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 공식 확인.

연합뉴스



지난 2013년 11월 국내 첫 적외선 천문관측 위성인 과학기술위성 3호(STSAT-3)가 러시아 아리아나 5 발사장에서 발사 되는 모습. /연합뉴스

## 과학기술위성 3호 6개월간 우주관측 못해

### 미래부, 카메라 고장 알면서도 임무 완료 발표

정부가 2013년 11월 발사한 '과학기술위성 3호'가 임무 기간 2년을 채우기 전 일부 부품이 고장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과학기술위성 3호는 우주와 지구를 관측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2년간 600km 상공에서 지구를 1만500회 정도 돌며 다양한 관측 자료를 촬영했다.

12일 미래창조과학부통신위원회 소속 김재경(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위성 3호의 '적외선 우주관측 카메라'가 임무 기간 중 마지막 6개월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카메라의 필수 부품인 '검출기 냉각기'의 수명이 다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성은 지난해 5월부터 약 6개월간 우주관측을 하지 못했다. 다만 지구 관측 카메라는 고장나지 않아 끝까지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했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주무 부처

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해 '과학기술위성 3호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쳤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미래부는 지난해 11월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과학기술위성 3호는 수명 2년으로 개발됐으며, 우리 은하의 기원과 우주탄생 초기 별들의 공간 분포 등을 연구할 천문우주학 자료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미래부는 당시 카메라 고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다만 '노후화된 상태'라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과학기술위성 3호의 임무는 우주 관측, 지구관측 두 개인데 임무 기간이 각각 1년과 2년으로 다르다"며 "1년 6개월간 우주관측을 했고 지구 관측은 2년 임기를 다 채웠으니 성공했다고 발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주무 부처

연합뉴스

## KT, 평창올림픽 방송 통신망 공급계약 체결

KT는 올림픽주관방송사(OBS·Olympic Broadcasting Services)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방송중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망'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올림픽주관방송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진행되는 경기장 12곳과 비경기장 5곳의 경기 영상물 국제방송센터(IBC·International Broadcasting Center)까지 KT 광케이블 1004회선을 이용해 전달한다.

국제방송센터에 전달된 경기영상은 각 국 60여개 방송사업자를 통해 전세계 22억명 시청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KT는 지난 12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체결한 통신공급계약(TSA)에 이어 이번 방송중계망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에 공급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공급계약을 완료했다.

KT 평창동계올림픽추진단장 김형준 상무는 "튼튼한 통신인프라를 활용해 올해 말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와 본 대회를 위한 방송중계망을 적기에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세계 스마트폰 판매왕 삼성...사용률 1위는 애플

삼성전자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판매 대수 기준으로 점유율 1위를 수년간 차지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실제로 쓰고 있는 단말기의 수를 기준으로 보면 애플이 1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손바닥 세상'을 장악한 모바일 브랜드는 여전히 애플이라는 얘기다.

지난 10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둔 시장조사기관 뉴즈(Newzoo)에 따르면 세계 각국 소비자가 올해 7월 실제로 사용중인 스마트폰과 태블릿 5억5000만여 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애플 제품 실사용자가 34.8%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제품 실사용자의 비율은 전체 제품 실사용자 중 23.3%로 2위였다. 이 기준으로 보면 애플은 북미·

중국·중동·아프리카 등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삼성은 남미와 유럽에서 선두였다.

특히 남미에서는 실제 쓰이는 모바일 기기 중 삼성 제품의 비율이 48.4%에 달했다고 뉴즈는 전했다. 남미의 모바일기기 사용자 2명 중 1명은 삼성 제품을 쓰고 있다는 얘기다.

이어 3~5위는 중국의 강호인 화웨이(5.4%)·샤오미(3.7%)·레노버(2.7%)가 각각 차지했다. 6위는 2.5%인 LG전자였고 소니(2.4%)가 그 다음이었다.

8~10위도 중국계 기업이었다. 중국 스마트폰 업계의 신생 스타인 오포와 비보가 각각 2.4%와 2.0%였고, 다만 HTC는 1.2%로 10위에 턱걸이했다.

연합뉴스

### ■ 스마트 기기 실사용자 비율

(단위:%, 7월 기준)

기업	사용률	기업	사용률
① 애플	34.8	⑥ LG	2.5
② 삼성	23.3	⑦ 소니	2.4
③ 화웨이	5.4	⑧ 오포	2.4
④ 샤오미	3.7	⑨ 비보	2.0
⑤ 레노버	2.7	⑩ HTC	1.2

(자료:시장조사기관 뉴즈)

다만 삼성은 판매 대수 기준으로 본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압도적 1위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의 삼성 점유율은 21.4%로 2위인 애플(11.2%)의 거의 2배였다.

연합뉴스



중개  
법인

# 한국토지경매

☎ 대표 1522·3396

**수익형 빌딩**

경매

감정가 24억3천만, 최저가 17억

순천시 풍덕동 / 10층 54호 / 대지 106평 건물 690평

**가스충전소**

매매

감정가 12억7천만, 최저가 8억9천만

화순 / 대지 977평 건물 108평 / 자동세차기 / 3기 6구

**오피스텔**

매매

매매가 40억

학동 / 8층 / 대지 133평 건물 577평

**상가건물**

매매

매매가 14억5천만

월계동 / 3층 / 대지 198평 건물 450평

**수익형 상가 빌딩**

감정가 21억3천만, 최저가 9억6천만

동구 금남로 / 대지 172평 건물 249평 / 금남로 메인 도로점 / 3층

**토지**

감정가 16억4천만, 최저가 16억4천만

화순 화순읍 / 대지 932평 / 2종일반주거지역, 개발촉진지구 / 광덕지구 서측 / 8m도로점

**고급레스토랑**

감정가 9억 1천만, 최저가 5억1천만

영암 삼호읍 / 2동 1층 / 임야 3166평 대지 721평 건물 130평 / 삼포교차로 북측

**고급펜션 및 전원주택 부지**

감정가 7억 1천만, 최저가 5억

해남 화원면 / 임야 4691평 /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 해안도로점 / 해변 전망

**전통한옥식 전원주택**

감정가 3억6천만, 최저가 2억

보성 / 대지 185평 건물 80평 / 도로점 / 보성강 전망

**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성업중

**전통한식당 및 웨딩공연장**

매매가 16억

담양 고서면 / 대지 1570평 건물 571평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전원주택**

매매가 13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숙박시설 부지**

매매가 8억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매매가 5억5천만

북구 안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6772-1114 김주성